

반환점 돈 프로배구… AI페퍼스, 반등 신호탄 쏠까

오늘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와 맞대결

7승 12패 승점 20점 리그 6위… 수비 집중력 올려야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여자프로배구단이 후반기 재도약을 노린다.

AI페퍼스는 6일 오후 7시 서울장충체육관에서 GS칼텍스 배구단과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두 번째 경기를 치른다.

앞서 지난 2일 AI페퍼스는 IBK기업은행에게 세트스코어 1-3(16-25 26-24 17-25 20-25)으로 패배했다.

그 결과 7승 12패 승점 20점으로 리그 6위에 머물렀다.

AI페퍼스는 시즌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 공격수 조이와 아시아쿼터 마들블로커 시마무라 등의 활약을 앞세워 리그 최상위권에 위치했다. 그러나 2라운드 두 번째 경기인 현대건설전에서 승리한 이후 9연패 터널에 갇히면서 순위가 급락했다. 지난해 마지막 경기에서는 GS칼텍스를 꺾으며 연패 탈출에 성공했지만, 올해 첫 경기인 기업은행전에서 연승에 실패했다.

상반기를 마치고 반환점을 돈 현재 V리그 여자부 중·하위권은 혼전이다.

1위 한국도로공사(승점 40점)와 2위 현대건설(승점 38점)은 2강 체제를 굳건히 했다. 이어 3위 흥국생명(승점 33점), 4위 GS칼텍스(승점 28점), 5위 IBK기업은행(승점 27점)이 중위권 싸움을 이어가는 중이다.

AI페퍼스와 7위 정관장(승점 18점)은 하위권을 벗어나기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지난 2일 경기에서 AI페퍼스 조이가 스파이크를 때리는 모습. 사진제공=KOVO

매 경기마다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AI페퍼스는 공·수 모든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다.

5일 경기 전 기준 AI페퍼스는 유일하게 1500점대 득점(1544점)에 머물며 이 부문 리그 최하위에 위치했다. 또 공격종합 5위(시도 2545회·성공 989회·성공률 38.86%), 오픈 7위(시도 1016회·성공 308회·성공률 30.31%) 등 강력한 공격을 앞세웠던 시즌 초반과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매년 약점으로 꼽혀왔던 서브와 리시브에서 여전히 한계를 느끼고 있다.

AI페퍼스는 현재 서브 7위(시도 1548회·성공 66회·세트당 0.917개)에 위치해 있다. 서브 공략에서부터 어려움을 겪다



지난 2일 광주페퍼스타더울(영주체육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과의 진에어 2025-2026 V리그 여자부 4라운드 첫 번째 경기에서 AI페퍼스 장소연 감독이 타임아웃을 가진 뒤 선수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KOVO

보니 상대의 리시브가 수월해진다. 결국 다양한 루트를 활용하는 상대 공격을 막기에 급급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서브 범실은 157개로 7개 구단 중 가장 많다. 중요한 승부처마다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리시브 순위는 6위로 리시브 효율이 24.26%(시도 1480회·정확 443회)에 그친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로가 단순해

지고 결국 막힐 가능성이 높다. 실제 최근 AI페퍼스 경기에서는 외국인 조이에게만 공이 집중되는 현상이 뚜렷하다. 수비가 받쳐주지 못하다 보니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셈이다.

서브, 리시브 문제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반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경기 상대인 GS칼텍스는 현재 9승

10패 승점 28으로 리그 4위에 자리하고 있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로 AI페퍼스가 우위에 있다. 9연패를 끊은 경기도 GS칼텍스전이었다.

GS칼텍스는 득점과 공격 1위 실바(609득점·공격성공률 46.11%)가 막강한 화력을 자랑하고 있다. 리시브 3위 유서원(리시브효율 40.34%), 세트 1위 김지원

(세트당 11.032) 등 또한 힘을 보태는 중이다.

상승과 하락의 갈림길에 있는 AI페퍼스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좋은 기억이 있는 GS칼텍스를 상대로 승리하며 중위권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FC, 새 시즌 옥석 가리기 나선다

26일까지 1차 전지훈련 돌입
태국 후아힌서 체력 집중 보강
내달 경남서 마지막 담금질

프로축구 광주FC가 2026시즌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광주는 5일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태국 후아힌으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1차 훈련은 오는 26일까지 약 20일간 진행되며 이후 경상남도 남해로 이동해 다음 달 15일까지 2차 전지훈련에 돌입할 예정이다.

따뜻한 기후의 환경인 후아힌에서는 선수단의 기초 체력 향상 및 전술 훈련에 초점을 맞추며, 2차 훈련에서는 실전 감각과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한다.

이번 전지훈련은 이정규 감독 부임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공식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새 사령탑 체제 아래 선수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훈련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정규 감독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믿는



이정규 감독이 5일 전지훈련을 위한 출국에 앞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다”고 강조한 만큼 선수 개개인이 새로운 훈련 시스템과 원칙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느냐가 이번 전훈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정규 감독은 “광주가 그동안 쌓아온 시스템을 잘 유지하면서,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이번 전지훈련을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라며 “전지훈련에서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로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1차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5일 태국 후아힌으로 출국한 광주FC 선수단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소통·신뢰 확립…도약하는 전남 체육 만들 것”

전남도체육회 80주년
공정·투명 행정 실현
사무식·청렴 선포식도

전남도체육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전남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5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의 미래 비전과 실현 의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송진호 회장의 신년사, 직원 대표의 새해 다짐, ‘회장에게 바란다’ 소통의 시간, 청렴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전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송진호 도체육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전라남도체육회가 창립 80



전남도체육회는 최근 도체육회관 1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사무식 겸 청렴선포식을 열고, 전남체육의 미래 비전과 실현 의지를 공유했다.

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해”라며 “지난 80년간 선배 체육인들이 일궈온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체육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가기 위해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덧붙였다. 청렴선포식에서 전 임·직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청렴한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체육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 실천 활동과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도

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전남체육 80년, 도약하는 100년’이라는 비전 아래 체육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전남 체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여자 핸드볼 H리그, 광명서 10일 개막

광주도시공사, SK와 대결…8개 팀 3라운드 총 84경기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오는 1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H리그는 지난해 11월 남자가 먼저 개막했다. 여자부는 지난해 11월 27일~12월 14일까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열린 ‘제27회 여자핸드볼세계선수권대회’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면서 늦게 개막전을 치르게 됐다.

8개 팀이 출전하는 여자부는 오는 4월 19일까지 3라운드에 걸쳐 총 84경기를 치

르며, 4위까지 포스트시즌에 진출한다. 개막전은 경기도 광명시민체육관에서 펼쳐진다.

오후 2시에는 지난 시즌 19연승으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통합 2연패를 달성한 SK슈가글라이더즈와 6위를 차지했던 광주도시공사가 맞붙는다.

오후 4시 15분에는 5위를 차지했던 서울시청과 8위를 기록한 인천광역시청이 맞대결을 펼쳐 그동안 갖고 닦은 전력을 선보인다.

11일 오후 2시에는 4위를 차지하며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던 부산시청과 3위를 기록한 경남개발공사가, 오후 4시 15분에는 두 시즌 연속으로 2위를 차지했던 삼척시청과 7위를 기록했던 대구광역시청이 맞붙어 시즌 첫 승리를 노린다.

광명시민체육관에서 일정을 마친 여자부 경기는 이후 광주 빙고을체육관, 청주 SK호크스 아레나,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산 기장체육관, 삼척 시민체육관 등 6개 지역을 돌며 진행될 예정이다.

신한 SOL Bank 2025-2026시즌 핸드볼 H리그의 시즌 모든 경기는 네이버, 다음, 맥스스포츠TV를 통해 생중계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한 SOL Bank 2025-2026 핸드볼 H리그’ 여자부 경기가 1월 10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다. 사진제공=한국핸드볼연맹(KOHA)